



우물 안 개구리의 파괴적 혁신 - 정저지와(井底之蛙) -



박재희
민족문화콘텐츠연구원장

- 성균관대 철학박사
- 前 포스코 석좌교수
- 前 서울시 문화재 전문위원
- 인문경영원 대표
- 흥천 Salon In Moon 대표

익숙한 것과 결별하고 새로운 길로 향해 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치열한 생존의 현장에서는 파괴를 통한 혁신이 없으면 지속적인 생존이 불가능하다. 장자는 기존의 가치를 부수고 가치의 바다로 향해하라고 강조한다. <장자> 첫 편인 소요유(逍遙遊) 편에서 봉(鵬)이라는 새를 통해 새로운 가치로 향해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 북쪽 바다에 살던 조그만 물고기 곤(鯁)은 어느 날 바다에서 나와 하늘을 나는 새로 변신한다. 헤엄치는 물고기가 나는 새가 된 것은 익숙한 자신의 모습과 결별한 결과다. 기존의 시간과 공간의 파괴, 그리고 새로운 시공간으로의 향해, 그것이 결국 나를 새로운 세계로 인도한다.

장자는 우물 속 개구리의 고사에서 공간에 갇힌 개구리가 우물 속에서 바라본 하늘의 크기에 갇혀 있을 때 새로운 하늘을 보지 못한다고 한다. 이 고사는 황하의 신 하백(河伯)과 북해(北

海)의 신(神) 약(若)의 대화 속에 등장한다.

황하의 신 하백은 가을 물이 불어나서 끝없이 펼쳐진 자신이 다스리는 강을 보고 너무 흡족하였다.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것이 모두 자기에게 있고 세상에서 자신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였다. 이렇게 자신의 모습에 도취된 하백은 어느 날 동쪽으로 여행을 떠났다. 동쪽 끝에는 거대한 바다가 있었다. 하백은 망망히 펼쳐진 거대한 바다의 모습을 보고 아연실색 경악하였다. 그동안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크다고 생각한 모든 자만이 여지없이 부수어지는 순간이었다. 하백은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세상에서 자신이 가장 크고 아름다운 줄 알았는데 자기보다 더 크고 위대한 바다의 모습에 넋을 잃었다. 그는 바다를 다스리는 신(神) 약(若)에게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편협한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를 반성하며 이렇게 말했다.

“내가 당신 앞에 와서 직접 당신의 그 모습을



보지 못했으면 어떡할 뻔했소. 아마 내가 세상에서 가장 잘나고 크다고 생각했을 것이오. 정말 그동안 나의 그 좁은 소견이 후회됩니다. 당신을 못 만났다면 영원히 남의 웃음거리가 될 뻔했습니다.” 바다의 신 약(若)은 하백에게 이렇게 3가지 충고를 해준다.

“세상에는 나의 새로운 변신을 방해하는 3가지 그물이 있네. 이 세 가지 그물에 걸리면 생존이 어렵게 되지. 첫째는 공간(space)의 그물이네. 예를 들면 우물 속에 있는 개구리에게는 바다에 대하여 설명할 수가 없네(井蛙不可以語海). 왜냐하면 그 개구리는 자신이 사는 우물이라는 공간에 갇혀 있기 때문이지(拘於虛也). 이것이 공간의 그물에 걸려 있다고 하는거야.

둘째는 시간(time)의 그물이네. 예를 들면 한 여름만 살다가는 여름 곤충에게는 겨울의 찬 얼음에 대하여 설명해 줄 수가 없네(夏蟲不可以語冰). 왜냐하면 그 여름 곤충은 자신이 사는 여름이라는 시간에 집착하기 때문이지(篤於時也). 이것이 시간의 그물이네.

셋째는 지식(knowledge)의 그물이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시골동네 지식인에게는 진정한 도의 세계를 설명해 줄 수 없네(曲士不可以語道).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의 그물에 걸려 있기 때문이네(束於教也).” 일명 <장자>가 말하는 생존에 걸림돌이 되는 세 가지 그물의 우화다.

개구리는 우물 밖의 세상에 대하여 상상할 수 없다. 자신이 올려다보는 우물 안의 하늘이 다인

줄 알기 때문이다. 여름철 잠깐 살다가는 여름벌레는 겨울이란 시간과 얼음을 이해하지 못한다. 자신이 사는 여름이 다인 줄 알기 때문이다. 저 시골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이 모르는 지식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는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에 발목이 잡혀 있기 때문이다.

장자는 이 고사를 통해 3가지 집착과 한계를 파괴하라고 충고한다. 첫째 자신이 속해있는 공간(space)을 파괴하라! 둘째 자신이 살아가는 시간(time)을 파괴하라! 셋째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knowledge)을 파괴하라! 내가 최고라는 생각과 자만에 빠져있는 사람이라면 장자의 이 우화를 한번쯤 되새겨 볼 만하다.

미래 사회학자 엘빈토플러는 그의 책 <부의 미래(Revolutionary Wealth)>에서 앞으로 다가오는 부의 혁명 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조직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으로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공간을 파괴하라(stretching space)! 둘째, 시간의 속도를 재조절하라(rearranging time)! 셋째 지식을 재신임하라(retrust knowledge)! 어느 조직이든 개인이든 새로운 공간으로 확장하고, 지금과 다른 속도를 내고, 기존 방식을 회의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이론은 전국시대 <장자(莊子)>가 주장하는 자기 혁명 이론과 유사하다.

동양고전 <장자>에서 제시하는 참사람 진인(真人) 모습은 자신의 익숙함을 부수고 새로운 나를 창출하는 사람이다. 일명 자기 파괴라고 말

할 수 있는 '무기(無己)'를 실천하는 사람이다. 무기(無己)는 나(己)를 부수(無) 것이다. 나의 고정관념과 공간과 시간을 파괴(無)한 진짜 사람, '진인(眞人)'이야말로 장자가 꿈꾸는 난세에 영혼을 잃지 않고 사는 사람의 모습이다. 가짜 사람과 대비되어 강조되는 이상적인 인간형 진인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자신을 부수고 새로운 나의 모습을 만든 사람이다. 세상이 정해놓은 가치, 그 관점이 아닌 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다. 남들은 쓸모없다며 무용(無用)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쓸모 있는 유용(有用)한 것으로 만들어 낼 줄 아는 가치혁신(value innovation)이 가능한 사람이 진짜 사람, 진인(眞人)이다.

붕(鵬)이라는 전설상의 새는 장자가 제시하는 가치혁신 인간의 비유된 모습이다. 자신이 사는 동지를 날아다니며 한 모금의 물에 안주하는 뱀새가 이해하지 못하는 새로운 하늘과 장대한 비행거리를 확보한 봉새는 한번 날라 수천 킬로를 날아간다는 알바트로스(albatross)다. 고정관념에 빠진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한다. 왜 저토록 봉새가 높이 멀리 나는지를. 높이 날아야 멀리 볼 수 있다는 생각을 시도조차 해보지 못한 사람은 봉새를 비웃으며 자신의 처지에 안주하는 것이다. 사물의 가치는 본질(fact)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어떤 안목으로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가치(value)는 파괴(destruction)되고 새로운 가치가 나오는 것이다.

장자는 어느 송(宋)나라 사람의 고사를 통하여

가치의 혁신을 이야기하고 있다. 송나라에 대대로 빨래만 전문으로 하여 먹고 사는 집안이 있었다. 이 집안은 동네 주민들의 솜을 걷어다 물에다 불려 빨아서 이불을 만들어 주는 기술로 한 가족이 그래도 밥은 그럭저럭 먹고 살 수 있었다. 이들은 겨울철에도 빨래해야 했기에 아무리 찬물에 손과 발을 담그더라도 손발이 트지 않는 약 만드는 비법을 만들어 대대로 다른 어떤 사람보다 경쟁력을 가지고 빨래하는 직업을 잘 할 수 있었다. 어느 날 그 지역을 지나던 과객이 겨울철 손이 물에 닿아도 피부가 트지 않는 약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그들에게 가서 백금을 주고 그 기술을 사겠다고 제안하였다. 집안의 대표는 가족들을 모아놓고 의논하였다.

“우리는 대대로 빨래만 해서 호구를 마련하던 사람들인데 이제 손 안 트는 약을 만드는 비법을 누군가 팔라고 하니 백금을 받아서 농토를 사서 남들처럼 농사를 짓고 살아보자”

가장의 말에 가족들은 동의하였고 결국 그 비법을 과객에게 넘겼다. 과객은 그것을 가지고 오나라 수도 소주에 가서 오(吳) 왕에게 자신을 장군의 직책에 등용하여 줄 것을 청하였다. 때마침 항주에 근거지를 둔 월(越)나라가 군대를 일으켜 오나라로 쳐들어왔는데 오나라 왕은 그 사람을 장수로 파견하였다. 때는 찬 바람 부는 겨울철이었고 마침 양자강 유역에서 수전(水戰)을 하게 되었다. 빨래방에서 산 비법을 이용해서 대규모의 손 안 트는 약을 만들어 자신의 병사들에게 바르게 한 오나라 장수는 강한 전투력으로



월나라 군대를 대패시켰다. 대승을 거두고 돌아온 장군에게 오나라 왕은 땅을 떼어서 하사하여 그 장군을 오나라의 제후로 봉하였다는 이야기다. 장자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한다.

‘똑같은 손 안 트는 약인데(不龜手之藥) 누구는 그것을 가지고 제후로 봉해지고(或以封), 누구는 평생 빨래하는 직업을 못 벗어났다(或不免於緝澣紝). 이것은 같은 물건이라도 누구에 의해 어떻게 사용되는가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냐(所用之異也)?’

유용(有用)과 무용(無用)의 가치혁신이 어찌 손 안 트는 약을 만드는 기술뿐이겠는가? 인생

도 어떤 관점에서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진다. 작은 시간이라도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시간의 가치는 달라진다. 결국 사물의 본질은 사용자의 관점과 쓰는 방법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자신이 안주하는 공간을 파괴하라! 자신 알고 있는 지식을 파괴하라! 자신이 살고있는 시간을 파괴하라! 이 시대가 원하는 파괴적 혁신(destructive innovation)을 실현한 무기(無己)의 혁신, 장자가 꿈꾸었던 참사람, 진인(真人)의 모습이다.

KIIF